

KNSI REPORT

<제39회 코리아포럼(전문가좌담회) 녹취록>

▣ 한반도 위기 진단과 전망 ▣

일시: 2013년 3월 22일(금) 10:00~12:00 / 장소: 코리아연구원

- ▶ 사회: 김연철(코리아연구원 원장·인제대)
- ▶ 토론: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박홍서(동덕여대)
최종건(연세대)

● 주최: 코리아연구원, 오마이뉴스

KNSI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코리아연구원(이사장: 이재정 / 원장: 김연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김연철(사회자, 코리아연구원 원장·인제대) : 오늘 좌담회는 세 부분으로 진행하겠다. 첫 번째 현재 한반도 위기의 성격, 두 번째는 앞으로의 전망,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법에 관해서다. 먼저 한반도 위기 상황. 다양하게 진단하고 있다. 비관주의도 있고, 협상에 대한 가능성 등을 믿는 사람도 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다. 먼저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말해보자. 북핵이나 남북관계 등에 있어 현재 수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창수(코리아연구원) : 지난 20년 동안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중요한 정치 이슈였다. 일정한 패턴을 반복했다. 그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위기가 발생해도 성격을 진단할 수 있고 해결 방안 전망할 수 있었다. 위기여도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그것을 예측할 수 있기에 위기의식 느끼는 정도가 낮을 수 있었다. 상황이 덜 심각하다고 예측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패턴 측면에서, 과거엔 위기조성-타협-대화-합의채택-이행과정-이견으로 파탄-북 항의, 위기 고조-미 반발-타협 하는 게 반복됐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좀 벗어났다. 과연 이런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특징은 북한이 자신들의 핵 능력을 선포하며 우리 이 정도까지 핵을 갖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식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 미국의 전략적 인내 등으로 북한이 핵 능력 과시 해도 한미 양국이 반응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2010년 해커박사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주고, 그걸 입증하는 선언을 계속 하고 핵실험 했다. 현 상황이 위협스러운 이유는 북한이 자꾸 떠드는 게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패턴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또 과거와 달리 이런 상황, 긴장 고조되는 걸 억제할 환경이 안 갖춰져 있다. 주변 6개국이 모두 권력 이양기에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인준 청문회 진행 중이다. 누군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고, 실무자 인선도 안 됐다. 한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공식 소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긴장 고조됐을 때 이걸 억제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과거 김정일 체제는 김정일이 칼을 뽑으면 남한이 바들바들 떨고 꼬리 내렸다고 하며 다시 칼을 칼집에 꽂아넣을 수 있는 통치력이 있었다면, 김정은 체제는 말로 떠들어 위기를 고조시켜놓고 그걸 다시 수습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 현재 위기를 고조, 지속시키고 있다.

김연철: 현재 위기가 과거와 다른 점은, 패턴별로 보면 과거엔 위기-협상-교착-위기-협상 반복됐는데, 최근에는 협상 국면은 생략된 채로 계속 악순환 되고 증폭되는 과정에서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두 번째는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악화됐다. 북한 내부적인 원인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위기를 과거보다는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최종건(연세대):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제 생각으로는 지난 5년간 아무것도 안 한 것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 우린 비핵개방 3천이라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두 가지 정책의 성격은 북한의 선제적 변화 요구였다.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전략, doing nothing strategy였다. 그러다보니 북한이 액션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에 패턴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반응이 없으니 더 세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5년간 한미양국의 정책 결과가 실패든 성공이든 간에 하나로 나타난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성격, 북한이 분명히 핵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중요한 건 소위 안보 위기란 국면에 있어선 본질적으로 '안보 딜레마'의 전형적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분명히 방어적 의도로 하는 행동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공세적이다. 우리 역시도 키 리졸브는 스케줄에 따른 것이고, 여러 정책들이 북한 침공을 가정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에게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보인다. 유엔 제재 하에 미국 공격형 전략가들 다 들어온 상태다. 이 안보딜레마가 무서운 게, 소통하면 되는데, 백채널을 이용해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 위

기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부재, 지도력 부재 문제도 있지만 이걸 굴러가게끔 놔두는 방식의 안보 딜레마 끝이 원치 않는 분쟁의 소용돌이로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든다.

또 하나 미국이 동아시아 귀환 정책으로 군비감축과 별개로 전략적 최우선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다. 이 곳을 강하게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도 억제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재진입은 -개인적으로 미국은 동아시아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북한이 의도치 않게 정당화해주고 있다. 참 어렵다. 지난 5년간 아무것도 안 한 정책의 구조적 결과에 더해 안보딜레마가 심화됐는데 양측은 소통채널 없이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동아시아 재진입을 정당화하는 상황이다.

김연철 : 사실 중국입장에선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같다. 중국 딜레마라는 게 한 편으로 보면 북 핵확산에 대해 다른 주변국들만큼 중국도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과정에서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을 때 한미 군사동맹으로 한반도에 진출하게 된다. 이 것이 중국 전략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사이에서 중국은 북핵정책 또는 한반도 정책에 대해 굉장히 고심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박홍서(동덕여대) :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중국이 변했냐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오는데 레토릭 차원이다. 정책 구조는 그대로다. 이걸 구조적 변수가 강하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 중국은 무시할 수 없다. 반대로는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 이 두 축 사이에서 중국에 해결책은 없다. 진퇴양난이다. 그럼 딜레마는 해결책 없으니까 관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설득하고, 미국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다' 정도의 제스처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데 북한이 좀 더 오버해서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게 패턴이었다. 지금 원유공급 끊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인 압력 행사할 것.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이다. 북한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미 관계 정상화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마저 북한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시켜 중국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기 직전 북중관계를 보면 북한이 서운한 게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의도가 작동하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김연철 :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대립적이고 안보리 체제 이행 과정에서 중국이 과거와 다르게 움직이는 점도 있다. 그럼에도 박 박사는 구조적으로는 양국 정세에 있어 전략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과 구조적, 전략적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 같다. 여기까지 보면 대체로 세 분의 진단이 비슷하다. 그렇다면 정세 어떻게 될까. 특히 사람들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다. 군사훈련 일정이 4월말까지로 되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김창수 :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위기가 고조될 때 항상 있는 것이다. '대포가 쏘이면 저절로 터진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긴장 고조되면 의도하지 않아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고의적 충돌이나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제어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고의적 충돌도 예상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긴장을 고조시켜서, 그동안 패턴 반복에서 탈피한 상황이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 고의적 도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북한의 목적과 관련, 자신들 의도를 상징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서해5도다. 정전협정상 모호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은 어떻게든 공격적 행동으로 정전협정의 취약성을 보여줄 수 있다. 최소 수준이라면 NLL을 넘어서는 포 사격이 있다. 그럴 경우 서해5도는 이미 여러 차례 긴장이 반복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도 어떤 종류의 도발이든 이것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 국지적 충돌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내륙과도 떨어져 있으니까, 확산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포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불법적인 게 아니라고 내세우기 위해 백지화를 선언 했다고 본다. 그럼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판문점 인민군 대표부 기능 중단이다. 그 다음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군사적 무력 시위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중요한 기능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 동해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지적할 것,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건, 미사일 기능 공유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진짜 미사일 발사한 적이 있었다. 2006년 7월 5일이다. 단거리 6~7발, 장거리 발사했는데 장거리가 40초정도 날아가다 추락해서 실패로 평가됐었다. 그런데 나중에 미국 정보기관이 분석하기를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당시 북이 발사한 건, 원격발사 시험이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다시 한 번 장거리 발사할 가능성 충분하다. 성능 시험, 원격발사 테스트 등. 이런 것으로 북한은 정전협정 상태의 불안정성을 촉발시키고, 미국과 일본에 압력을 행사한다. 국제 사회, 특히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에 더해 고의적 도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

김연철 : 북한의 공격적 행동이 점점 직접적이고 강도가 센 형태로 나타난다고 예상하면 한미양국은 그걸 협상보다는 억지력 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억지력 강화가 과연 현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최종건 : 위협, 안보 불안이라는 것 우리가 참 관리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협이 들어오면 정권 잡은 입장에서 위기관리로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억지력 강화, 두 번째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첫째는 미디어가 많아진 탓도 있지만 요즘은 실제보다 사이즈가 많이 커진 채 알려진다고 생각한다. 우발적이란 것은 작은 불꽃이 크게 전이되는 건데, 저쪽이 어떤 행태하든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북도 군 실적이 있어야 한다. 천안함이 든 연평도든 현장 상황 터지면 현장지휘관이 판단하여 크게 반응해야 한다. 어떤 형태든 비슷한 조직논리를 공유하는 곳들끼리 충돌하면 어렵다.

그럴수록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서로 보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더 이니셔티브, 억지력 강화, 내부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한편으론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줘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니셔티브 줘야 하는 정책이다. 북이 하면 우리가 반작용하겠다는 현재는 상당히 문제 있다. 이게 더 문제인 건 지금상태에서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한 쪽이 완전히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다. 그 상황에선 사실 상 북이 핵 또는 미사일 능력 강화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이러다가 큰 수모 당하지 않느냐.

또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대화 불가능한 악마 같은 존재로 프레임 되었다. 정부가 인도적 지원은 한다고 하니... 제 스스로가 안보불안 강조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상황에선 비상구가 없다. B-52가 남한 4시간 머물렀다는데 그쪽(북)은 당연히 위협을 느낀다. 인디애나주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상공에 머물렀다는 것 아닌가. 어쨌든 모든 것의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이다. 위협 불균형만큼 피해 불균형도 중요하다. 평양에 떨어지는 포탄 한 발과 서울에 떨어지는 포탄 한 발의 정치, 사회적 파괴는 우리가 더 심하다. 이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더 위기관리 해야 하는데, 같은 수준의 게임을 북이랑 하면 우리가 더 큰 피해다.

김연철: 중요한 건 출구가 안 보여서 사람들이 더 불안해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직접 움직이면 제일 좋다. 그런데 미국도 움직일 명분이 필요하니까 중국을 본다. 중국은 과거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실타래를 다시 풀 수 있는 초기 환경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박홍서: 중국은 원론적인 얘기 반복한다. 6자 의장국이니 6자로 푸는 게 좋다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하자는

말 계속 한다. 한 축은 한반도 비핵화, 나머지는 안정과 평화. 두 축 사이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것 같다.

김연철: 새로 구성된 중국 외교팀들, 양제쯔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이 라인들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기존 다이빙귀는 북핵 해결과정에서도 나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에도 직접 특사로 가서 몇 번 어려운 상황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다. 양제쯔는 아무래도 미중협력 강화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의 변화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은?

박홍서: 중국 대북정책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과, 한쪽은 전통적 순망치한 관계 중시하는 군부가 있다. 요즘 미중관계 좋아지니까 전략과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보도 나온다. 제가 볼 때 그건 수면 위의 이야기다. 밑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논리가 굳건하다. 또 중국 인민들이 기사 나왔을 때 댓글 보면 여전히 북한은 형제국이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강하다. 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전통적인 논리가 과연 한 순간에 없어지겠는가.

최종건: 어쨌든 3자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에게는 김세는 일이다. 10년 동안 준비해서 정권 잡았는데 그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버리니, 자기는 국내정치 해야 하는데 계속 북한 문제 올라오면 결국 대외적으로는 책임국가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부담스럽지 않겠나. 유엔제재 통과시켜주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북한에 시그널 보내는 게 예전과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김창수: 그런데 과거에 보면, 후진타오 등장할 때 중국에서 북한 어떻게 평가할지 논란이 많았다. 시진핑 체제도 등장하자마자 핵실험 하나 불쾌감 속에 논의할 것이다. 이 때 지난 10년간 어떻게 북한을 평가, 논의했는지에 기초할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되지 않을까. 이 점에서 주목하는 건,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 했을 때 1718 결의안에 중국도 참여했다. 나중에 자료 보니까 중국이 그때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을 발표했다. 결의에도 참가하며, 책임국가로서 역할하려 했다. 그런데 2006년 12월인가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이기면서 부시 정부는 전선을 이라크에 더 집중할 필요성 있어서 북한과 관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과 대화, 2.13합의 채택했다. 이걸 본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순망치한'이라는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책임국가 역할 때문에 결의안에 동의했더니 미국은 자신들 이해 때문에 2.13합의를 했다. 그래서 중국도 결국 중국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을까 싶다.

박홍서: 중국의 국익은 두 가지다. 대미관계, 너무 중요하다. 수출 3분의 1을 떠받치는 대미시장이 없으면 중국은 위험하다. 반대로 한반도,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며칠 전에도 외교부에서 미국이 북미사일, 핵 때문에 알래스카 MD 한다니까 중국 외교부가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사태 악화될 뿐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게 전통적 국익이다. 이 사이에서 중국은 정말 북한이 오버해서 레드라인 넘는다면 제 생각에는 개입해서 극단적으로는 북한의 정권을 교체해서 친중정권을 세울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 19세기 말에도 그런 전략이 있었고. 그것보다는 미국과 공동통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계속 상황 관리하길 바라는 모습 같다.

김연철: 그러니까 중국도 골치가 매우 아픈 것이다. 중국이 안고 있는 고민을 우리가 적극 공유할 필요도 있다. 서로 외교적 협의로 공감대에 기반하여, 북핵 문제 해결 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어떤가? 오바마 2기가 1기와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있다.

최종건: 미국입장에서는 북한은 계속 나쁘게 행동해야 한다. 이란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북한과 이란의 불량한 행동은, 아랍, 즉 반이스라엘 세력이 악하다고 증명하는 증거의 일종이다. 무기확산 측면에서 보면 헤즈볼라 애들이

쓰는 미사일이 메이드인 북한이다. 미국의 이런 행동은 대이스라엘, 대아랍 정책의 중요한 고리다. 아랍에 전쟁 터졌을 때 북한에 신경 안 쓴 이유는, 중동과 북한이 연결되었다고 인식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 그들의 위협인식을 정당화해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입을 활용하는 게 북한이기도 하다. 우리입장에서는 야속하기도 하다. 단순히 민족공조 이런 것보다 한반도가 강대국 국제정치를 소비해야만 하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나마 한반도 관계가 좋아지면 할 수 있는 행보, 공간 넓어지는데 우리 대화자체도 미국이, 중국이, 정세가, 이런 식으로 외국만 본다. 남북 고리 끊어지면서 안보딜레마 상황 속에서 강대국을 봐야 하고, 그들 행동에 한반도정세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어렵다. 제 생각에 미국은 강력하게 돌아올 것이다. 미국은 유럽에는 신무기를 놓지 않았다. 문제는 돌아온 미국이 돈이 없다. 얇은 지갑으로 돌아오면서 레토릭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올해 많은 계산서가 날아올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19조 8천억 무기계약 이 뒤로 밀렸고, 50%정도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조정도 있을 수 있다.

참 야속한 게 다들 유체이탈화법을 쓴다. 서울 사는 사람이 마치 북한을 두고 시카고 사는 사람처럼 강경하게 말한다. 물론 억지하기 위해 강경한 메시지를 넣어야 하지만 선제타격이란 표현을 쓴다. 미국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서울에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싶다. 신중하게 얘기해야한다. 미국의 강경메시지는 지리적, 경제적으로 이해되지만 우리는 다르다.

박홍서 : 엇그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통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한반도 평화 필요하다고 했는데, 신문에서는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보도 됐다. ‘중국이 한국 도와준다’는 식으로 공개했다는 기사도 있다. 중국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중국 외교부 발표 자료 읽어주며) ‘한반도, 남북한은 동포고 둘의 화해와 합작 위해 중국이 중요한 협조하겠다, 한반도 안전과 평화는 한국에도 이익이고 중국에도 이익이다. 이해관계의 공통점 있다’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한국과 일치하는 곳이 중국이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입장에서 그렇다. 그래서 노무현, 김대중 때 한중관계 가까워지는 걸 보고 미국이 ‘배은망덕한 놈들’. 그런데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틀린 말 아니지 않냐. 좌우를 떠나서, 박 정부도 전향적으로 임하면 좋겠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김연철 : 해법을 모색해보자. 존캐리 국무장관에 대한 기대감 있는 것 같다. 몇 가지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구조적 제약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에서 볼 때 ‘미국발 위기해법 출구’가 제시될까?

김창수: 네.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 박홍서 교수는 중국 체제가 딜레마라고 하고 최종건 교수는 한국이 안보딜레마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다. 정도는 다르지만 딜레마에 놓여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3차 핵실험 이후 오바마가 “핵실험, 미국의 안보에 위협된다”는 말을 처음 썼다. 북핵을 두고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그걸 중동에 수출하거나 북이 소형화 경량화해서 미 본토를 위협하는 것이다. 2011년 1월 1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가 후진타오한테 ‘미국 본토에 대한 최초의 위협’이라고 했다. 그래서 미중이 남북 대화 권유했다. 그 후 2년 동안 핵 실험, 두 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의 위협력 강화가 있었다. 미국은 북핵 능력 강해지는 것 규탄하고 확산 막아야하지만, 본토 위협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딜레마에 빠졌다. 존 캐리, 지금 분위기 악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미국 조야 통틀어 가장 대화과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람이다.

딜레마 관리 차원에서 강경 정책, 핵우산 정책 쓰면서도 메시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존 캐리 방문, 한미 정상회담이 의미 있을 것이다. 출구 마련하는 계기 만들어야 한다. 또 현대 외교에서, 그 나라의 시민사회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가 중시되고 있는데 북한은 이를 정말 못한다. 미국 사람들 볼 때, 핵실험하고 위협하고 이러면서 로드맨 데리고 오는 건 공공외교가 아니라 북한의 이중성일 것이다. 북한도 미국에서 메시지 나온다면 좀 더 세련된 외교적 대응해야 국면이 풀릴 수 있다. 미국도 정치의 구조적 한계, 부정적 여론, 국제정치 속 구조화된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존 캐리가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하원은 워낙 강경하다. 여러 대북 제재안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 풀려면 북한의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김연철: 그게 중요하다. 한국, 미국, 중국도 외교정책 차원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그게 국내정치와의 관계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사실 원인은 북한이 제공한 측면 적잖이 있다. 위기 해법을 모색할 때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에서 필요한 장치라는 게 '자제'라고 하지만, 북한부터 자제력 발휘해야 한다. 말이 굉장히 거칠고, 위협의 수준도 정도를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걸 고려해서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에 차질 빚어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많다. 박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까?

최종건: 새 정부. 안보 콘트롤타워뿐 아니라 정부 콘트롤타워도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 국민과 정부 간 신뢰 있어야 국민이 지지한다. 그럼에도 박 정부가 해온 모습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본다. 계속 '신뢰'란 키워드를 사용한다. 통일부 장관도 취임 때 '이거 소진되면 인도적 지원하지 않겠냐'며 출구 열어둔 건 긍정적이다. 대북 메시지 계속 보내는 거다. 근데 정부적 파트에서 극단적으로 핵무장론, 북한에 강력히 말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적 콘트롤도 필요하다. 북한이 볼 때 어떤 메시지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딜레마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름까진, 미국 예산과도 관련되어 계속 태평양사령부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태평양사령부가 이 곳 안보가 시급하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서 대한민국은 같이 들썩 거리지 말고, 대중외교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뢰에 관한 메시지 보여주는 게 풀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싶다.

박 정부가 전 정부보다 못날 이유가 없다. 워낙 바닥이어서 더 까먹을 자산 없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면 플러스 될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해볼 것은 이런 안보위기에서 누가 수혜 받을까하는 점이다. 저는 북한이라고 본다. 그래서 야속한 상대다. 북한 내부에서도 강경정책 선호하는 군부세력이 아닐까. 선군정치 안한다고 해도 이걸 사실상 강력한 선군정치다. 지난 5년간 결과로 우리는 북한 내에 실질적 파워가 누구에게 있는지 모를 정도다. 그래서 계속 전화해야 한다. 최소한 사고 났을 때 북에 전화해서 '누가 그랬냐'고 물어볼 수는 있어야 한다.

김연철: 희망을 주셨다. 바닥을 쳤다. 그 말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 정부의 대중정책도 중요하다. 억지력 강화하다보면 한미군사동맹 강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중, 원칙적 공감은 할 수 있어도 한미군사력이 한반도에 전진 배치되면 중국과 상당한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박정부의 대중정책 방향 어때야 할까.

박홍서: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는 '묻지마 친미'였다면, 박정부는 첫 방향 잘 잡았다. 중국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몇 년 전 중국 가서 연설도 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한 문제 터지면 중국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중국 입장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이다. 중국은 구조적으로 딜레마에 빠져있다. 동아시아 동맹구조 굳건하고, 미국 주도하는 동맹 있는데 중국에게 '너네가 힘써서 북 문제 해결하라'는 건 중국 입장에서 이해 못한다. 제대로 된 대중정책하려면 중국 입장 생각해봐야한다. 중국이 느끼고 있는 딜레마를 봐야한다. 단기간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동북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얘기를 하면 중국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너네가 먼저 해결해'라고 하면 중국이 할 수 없는 걸 계속 강요하니까 중국도 불쾌할 것이다. 이를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김연철: 박 정부 신뢰프로세스의 성공 조건은?

김창수: 과거와 달리 상황이 심각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뢰프로세스 성공해야한다. 그래야 위기상황 벗어날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박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여타 국내정책에 비해 북에 대한 입장표명, 관리는 비교적 후한 점수 줄 수 있다. 그래서 기대도 크다. 성공에 필요한 점은, 통일부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해야한다.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됐을 때, 그 구조를 보면 육군 4성 장군들이 주요 멤버다. 그렇게 하고 통일부 장관이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자체가 통일, 외교, 국방 등 다양한 분야가 제역할 충실히 하고, 그 기능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부가 제 역할 수 있게 해주고 국방 외교와 협력하게끔 해야 한다.

두 번째, 북한과 관계 속에서 초기 박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북한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채널을, 통치권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비공식 접촉도 좋고, 특사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채널 이용해서 신뢰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메시지 북에 계속 던져야 한다.

세 번째, 동아시아 외교정책이 모두 국내정책에 발목 잡혀 있는데, 박 정부가 국내정치에 지나치게 발목 잡히지 말아야 한다. 그걸 위해선 국내 보수-진보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보수세력 잘 관리하면서 진보-보수 대화하도록 뒷받침하고 주도한다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두 진영이 박 정부 대북정책 성공위해 뜻을 모을 것이다. 국내적 기반 만들기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다.

김연철 : 정치적 입장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협력이 우리 국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북정책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데에 공감한다. 저는 채널 문제, 소통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본다. 채널은 결국 형식 문제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공식/비공식/ 언론에 나오는 것도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건 형식보다 정책의 방향. 국민뿐 아니라 북한이란 상대, 주변국도, 우리 정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갖고 있구나.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해법은 결국 해결의지 있으면 방법 찾을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출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방법은 전문가들, 관료들, 여러 사람들의 지혜 모으면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과거보다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해결 의지를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 MB대북정책, 외교정책, 결국 초당적 합의 기반 넓히면 넓힐수록 국민의 지지 얻을 수 있음에도 너무 소홀히 했다. 박 정부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니 책임 공유할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야당과 충돌보다는 과거 정부에서 경험 있는 사람들의 지혜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 나름 해법도 마련될 거다.

박홍서 : 좀 더 거시적인 해법, 구조적인 문제가 안 풀리면 북한은 계속 벼랑 끝으로 나갈 것이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다. 그런 점에서 박 정부, 한국이란 국가에 남겨진 건 북한을 붕괴시킬 것이 아니라면 북미관계 개선에 우리가 돕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게 없다면, 북한은 끊임없이 벼랑 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가장 난처한 곳은 중국이고, 미국은 표정관리 하는 데 남한은 게임 참여자로 북한을 인정 안 해서 동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김연철 : 감사하다. 여기서 끝내겠다. (2013/03/22) **KNSI**